

“국민과 친숙한 場으로” 어항 만들기 다짐

日, 제46회 전국어항대회

제46회 일본전국어항대회가 지난 9월 7일
北海道 札幌市 北海道立産業共進會場에서 개최됐다.
전국의 어항관계자, 어업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수산관련단체 대표등
총 5,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최대의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에서는
수산업의 승고한 사명과 어항어촌의 정비를 위해 어항관계자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촉구하고,
올해부터 발족된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대회는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안전하며 살기좋은
국민에게 친해지는 지역조성이 시도되도록
어항관계시책의 적극적인 전개와 제사업을 더욱 촉진하는데
중요한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46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서
다음의 선언문과 4가지의안 및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선언문

수산업은 국민에게 신선하고
도 안전한 수산식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어촌지역 사회·경제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 완수가 강하게 기대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냉엄한 대외정세 가운데서
수산업이 그사명을 완수해 나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고도이용, 자원관리형

어업·재배어업의 추진, 수산
물유통의 합리화, 질서있는
수산물수입과 안정된 어가의
형성, 어업경영대책, 지역활
성화대책 및 여유와 정취있는
어촌공간 창출 등을 위한 시
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의 과제를
극복하면서 바다에 매력을 느
끼고 지역주민과 만남의 장을
갈구하는 도시주민의 강한 요

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
해서는 수산업을 지탱하는 기
반일뿐 아니라 어촌등 지역사
회 유지발전의 핵으로서 어항
의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어항어촌을
일체로 하여 적극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년말의 재정제도심
의회보고는 어항을 단순한
「산업기반」과 단락적으로 위
치를 부여하고, 공공투자배분

에 있어서 C랭크로 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의 이름 아래 어항관계 예산을 억제하고, 올해도 계속 억제코저하는 움직임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올해부터 발족한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은 수산업을 둘러싼 냉엄한 환경 가운데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본형 생활의 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밝고 살기좋은 어촌만들기를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책정된 계획이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숭고한 사명과 어항어촌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항관계자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극히 긴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자리 어항관계자 여러분들은 그 총의를 가지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거는 어항어촌정비의 적극적인 의의에 대하여 한층더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면서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을 중심으로하는 어항어촌관계 제시책의 확충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안 제1호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

진과 예산증액 확보의 건

요지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6개년간 총사업비 3조엔으로 수축사업 4백80개항, 개수사업 약 7백20개항 및 국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올해의 진도는 14.9%에 불과하다.

어항은 어업생산 및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서, 나아가서는 어촌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생활기반으로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정비를 수산업진흥상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하여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냉엄한 수산정세와 어항에 대한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책정된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2차년도에 해당하는 95년도에는 어항어촌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이 시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의안 제2호

어항어촌총합정비사업등 어항어촌에 관련된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증액 확보의 건

요지

어항과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과 어촌주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어항의 정비와 아울러 도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어업집락생활환경의 총합적 정비 및 어항에 있어서의 쾌적하고 정취있는 취업환경의 정비를 하는 외에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촉진하고 어협의 재편등에 이바지하는 광역어항연락도 등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95년도에는 낙도나 해안의 어항과 어촌에 대하여 일체적 정비를 시도하기 위하여 올해 창설된 「어항어촌총합정비사업」, 어업집락 생활환경의 개선을 광역적이고도 총합적으로 하는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및 쾌적한 어항환경의 형성에 필요한 녹지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어항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시책의 확충강화 및 「광역어항연락도정비사업」의 창설과 이들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의안 제3호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추진과 예산증액 확보 및 차기 장기계획의 조속책정의 건
요지

어항어촌에서의 생명·재산의 안전확보와 쾌적하고 정취있는 매력적인 해안공간의 창출을 도모하는 일은 풍요와 여유를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또한 어촌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91년도에 발족한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95년도에는 어촌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층의 안전성 확보와 보다 쾌적한 해안환경의 창출을 위하여 어항해안사업의 계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이 시도되도록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하는 동시에 근년에 있어서의 해안재해 실체에 비추어 해안보전시설의 정비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 차기장기계획을 조기에 책정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의안 제4호

어항관계사업에 관한 지방부담액의 경감과 재정조치 재평가의 건

요지

공공사업에 관한 보조율등에 대해서는 행정개혁심의회와 답신등을 근거로 하여 체계화·간소화의 관점에서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직할사업에 3분의2, 보조사업

에 2분의1을 기본으로 하여 92년도부터 항구화되었다.

그러나 어항을 관리하는 시정촌은 일반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고 더욱이 공공투자 가운데서 어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한 재원대책등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해상조건이 좋지않은 지역에서는 방파제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하지만 재정사정상 집중투자가 곤란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나타낼 수 없는 등 기간산업인 수산업의 진흥과 활력있는 어촌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95년도는 지방부담액의 경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별 및 어항종류등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현행의 보조체계와 보조잔액에 대하여 취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조치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도록 강하게 요망된다.

결의문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을 핵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입지조건이나 투자효과의 면에서 어항어촌의 일체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필

요가 있다.

그런데 어항등의 정비수준은 기본시설등에 대하여도 낮고, 어항의 첫째 기능인 어선의 안전정박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대세이다. 또한 어촌에 있어서의 생활환경정비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안전하며 살기 좋고 국민에게 친해지는 지역만들기가 시도되도록 어항관계사업의 적극적인 전개와 제사업의 가일층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책정된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과 관련하는 제시책이 완전히 실시되도록 한다는 국회의 결의도 근거로 삼아 전국어항관계자의 총의를 가지고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실현을 강하게 요망한다.

1.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
2. 어항어촌총합정비사업등의 확충강화
3.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 촉진과 차기계획의 조기책정
4. 공공투자 중점화 범위의 확보
5. 어항관계사업에 관한 지방부담액의 경감과 재정조치의 재평가 ▲